

광주 집단에너지 사업 차질 “우려”

투자자 잇따라 사업 포기 ... 동종업계 반발에 사업비 확보 애로로

광주지역 최초로 신개념 에너지 시설로 관심을 모았던 수완지구 집단에너지 사업이 대주주의 잇단 사업포기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9월11일 광주시와 관련시장 등에 따르면, 수완·하남2지구 집단 에너지 사업의 지배주주로 1월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던 D그룹이 2개월만에 사업을 포기한데 이어 K공제회도 사업에서 발을 뺐다.

D그룹은 애초 자본금 51% 출자한 것을 비롯해 공사비 등 모두 1000억원 이상을 투입하고 K공제회도 20%를 투자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막대한 사업비 투입에도 불구하고 회수기간 장기화, 아파트 분양 저조 등 경제성이 낮고 사업비 확보 애로, 동종업계 반발 등이 겹치면서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008년 아파트 입주시기에 맞추어 가동할 집단 에너지 시설의 정상 가동에 차질이 우려된다.

또 최근 아파트 동시분양에 나선 10여개 건설기업들이 집단 에너지 시설 건립으로 냉·난방비 등의 절감을 집중 홍보해 적기 가동 실패시 대혼란이 우려된다.

광주시 홈페이지 등에는 수완지구 대규모 분양에 맞추어 집단 에너지 시설의 공사 차질을 우려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광주시는 신규 참여기업 유치와 함께 지역난방공사 참여비율을 당초 29%에서 35%로 상향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단 에너지 사업은 열병합 발전소를 통해 생산된 전기와 냉·난방 에너지를 공급하는 신개념의 에너지 시설로 민간기업과 공기업,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지역 최초의 사업으로 관심을 모았다.

시간당 70만kW 전기를 생산하는 열병합 발전소와 200만kcal급 열전용 보일러, 60만kcal급의 축열조(열 저장시설) 등이 건설되고 187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광주시는 MOU 교환 당시 천연도시가스(LNG) 사용으로 연간 연료비 절감(351억원)과 난방비 30% 이상 절감, 이산화탄소 발생량 감소 등 건설효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현재 실시설계 등 사업추진은 지역난방공사가, 인허가 행정처리는 시가 맡아서 해오고 있다”며 “참여기업도 윤곽이 잡혀가고 있어 사업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저작권(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09/12>